

□ 2006년 주요 산업 경기 전망과 트렌드 변화

1. 개요

- 2006년 산업 경기는 IT와 기계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자동차, 물류, 조선, 해운 산업의 경기는 유지되거나 둔화되고, 건설업은 부진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2006년 주요 산업 경기 전망 개요 >

(단위: 전년대비 생산 및 수출 증가율, %)

		내수	수출	생산	비고
경기 호황 업종	IT	☀	☁☀	☀	- DRAM 수급 여건 개선 - 전반적인 IT 경기 반등 기대
		-3.8 → 8.1	6.7 → 10.6	-3.1 → 8.7	
	기계	☀	☁☀	☀	- 중국 등 개도국의 성장세 지속 - 국내 경기 회복세 가시화
		1.1 → 10.4	20.0 → 15.7	3.4 → 11.9	
경기 유지 업종	물류	☁☀	-	-	- 내수의 점진적 회복 - 위탁물류부문의 고성장 예상
		1.6 → 1.7	-	-	
	자동차	☁☀	☁☀	☁☀	- 내수 경기 부진 지속 - 미국 및 서유럽 수출 경기 둔화
		1.7 → 2.0	9.0 → 7.2	7.2 → 5.7	
	조선	☁	☁☀	☁☀	- 해운 경기 부진에 의한 수주 위축 - 기존 수주 물량 확보로 수출 호조
		-24.3 → -22.7	11.1 → 16.1	6.4 → 6.3	
	해운	☁☀	☁☀	☁☀	- 신규 선박 투입 확대 - 물동량 증가세 둔화
		26.6 → -10.3	-27.9 → -18.5	-40.6 → -4.3	
경기 부진 업종	건설	☁	-	-	- 공공 부문 건설 호조는 지속 - 민간 부문은 수요 위축
		4.2 → -3.7	-	-	

주: 1) 산업 특성상 해운 산업의 경우 내수는 컨테이너선 시황, 수출은 건화물선 시황을, 생산은 유조선 시황을 적용하며, 물류와 건설업은 내수만 적용함. 또한 조선 산업의 내수는 수주로 대체함

2) ☀는 호황(증가율이 5% 이상이고 2005년 대비 두 배 이상 상승), ☁☀는 양호, ☁는 부진(감소세)을 의미. 단 해운의 전 부문은 증가율 기준으로는 각각 ☁이어야 하나,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린 2004~2005년 실적과 비교한 상대적 둔화로, 전고점인 2000년 실적을 상회하므로 각각 ☁☀로 표시.

2. 산업별 전망

□ IT 산업

2005년 전반적인 부진을 보였던 IT 산업은 세계 IT 경기의 반등으로 경기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 (2005년 현황) 국내 경기 침체,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등으로 반도체 시장 위축과 정보통신 부문의 수익성이 악화됨
 - 반도체 부문 : PC 시장 침체로 인해 DRAM 수요 감소 및 가격 하락
 - 2004년을 기준으로 PC 시장은 DRAM 수요의 약 61%를 차지
 - DRAM DDR 256 가격은 2004년 2/4분기말 개당 4.85달러에서 2005년 2/4분기말 2.41달러로 50% 이상 급락
 - 정보 통신 부문 : 디자인 경쟁력 약화, 가격 경쟁 심화로 국내 업체들의 영업 수익성과 시장점유율 하락
- (2006년 전망) 세계 IT 경기가 그동안의 부진에 따르는 반등 효과로 완만하나 상승세를 나타낼 전망이어서, 반도체, TFT-LCD, 이동통신과 같은 국내 주력 IT 산업들의 경기 회복이 기대됨
 - 반도체 :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르는 신규 수요 확대, 재고 부담 해소 등 DRAM 수급여건 개선과 NAND F/S1) 생산 증대로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
 - 정보통신 : 국내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서비스 실시와 EU 시장에서의 대체 상품 수요 증가가 호재로 작용할 전망

< IT 산업 전망 >

	2004	2005(E)	2006(E)
수출 (백만 달러)	99,238 (61.0)	105,864 (6.7)	117,103 (10.6)
내수 (10억 원)	165,463 (11.8)	159,173 (-3.8)	172,131 (8.1)
생산 (10억 원)	207,905 (22.9)	201,544 (-3.1)	219,141 (8.7)

자료 : 산업자원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주 : 1) () 내는 전년 대비 증가율

2) IT 산업은 반도체 및 정보통신을 합한 것임.

1) F/S(Flash Memory)란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데이터가 계속 저장될 수 있는 메모리를 지칭. 플래쉬 메모리에는 NOR형과 NAND형이 있는데 플래쉬 메모리는 셀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NAND형이라하며 주로 디지털카메라,MP3,신형PDA폰에 사용됨. 메모리셀이 병렬로 연결된 NOR형에 비해 NAND 형은 제조단가가 싸고 대용량이 가능한 특징이 있음.

- (중장기 트렌드) 아시아권 시장의 비중 확대와 경쟁 격화에 따른 업체간 M&A 활성화가 예상되며, 환경 규제 강화 등과 같은 제도적 변화로 환경 친화기술 확보가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것임
 - 아시아권 시장 확대 : 중국을 필두로 베트남, 인도 등의 정보화 진전으로 반도체, 정보 통신 등 주요 IT 매출의 절대적인 비중이 아시아 지역에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 반도체산업협회(SIA)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일본 제외)지역의 반도체 시장 비중은 2005년 39%에서 2008년에는 46%로 증가할 전망
 - 업체간 M&A 활성화 :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업체간 적극적인 M&A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2005년 8월 獨 최대 통신 사업자인 도이체 텔레콤이 오스트리아 이동통신 사업자인 텔레링을 13억 유로에 인수함
 - 또한 7월에는 프랑스 텔레콤이 스페인 이동통신 사업자 아메나의 지분을 (80%) 인수하는 등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업체간 M&A가 활성화되고 있음
 - 환경 규제 강화 : EU를 중심으로 2006년 이후 환경관련 규제 강화 등 친환경 기술 확보가 주요 경쟁 요소로 부상할 가능성이 큼
 - EU는 2006년 7월부터 RoHS 시행으로 카드뮴, 납, 수은 등을 포함한 전자 제품의 역내 판매를 금지할 예정임

< RoHS >

- RoHS :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r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 카드뮴 (Cd), 납 (Pb), 수은 (Hg), 6가 크롬 (Cr⁶⁺)의 중금속과 난연제 (PBB, PBDE) 등 6가지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전자 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

□ 기계 산업

2005년 내수 부진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2006년에는 국내 경기 회복 및 중국 등 개도국들의 고성장 지속으로 회복세가 전망됨

○ (2005년 현황) 2005년 기계 산업은 내수 부진과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됨

- 국내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르는 기업 투자 심리 위축으로, 자본재 중심 품목인 기계류에 대한 내수 증가율은 2004년 7.1%에서 2005년 1.1%로 둔화 예상
- 세계 경제성장률은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 하강으로, 기계 산업 전체 수출 증가율은 2004년 36.2%에서 2005년 20% 내외로 하락

○ (2006년 전망) 국내 경기 회복 및 세계 경제의 성장세 유지로 두 자릿수의 수출 증가율이 예상되나, 국내 경제의 부품 또는 반제품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 증가율도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임

- 2005년 하반기부터 내수 회복이 가시화되어 국내용 기계 생산이 증가할 것이며, 세계 경제의 견실한 성장과 중국 경제의 연착륙에 의해 수출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정밀기계 및 최첨단 기계 장비, 핵심부품의 대외의존도가 높아, 수입 증가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됨

< 기계 산업 전망 >

구 분	2004(P)	2005(E)	2006(E)
생산액(조 원)	203 (9.6)	210 (3.4)	235 (11.9)
수출액(억 불)	683 (36.2)	820 (20.0)	949 (15.7)
수입액(억 불)	491 (29.5)	550 (12.1)	620 (12.7)
내수 (조 원)	181 (7.1)	183 (1.1)	202 (10.4)

자료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계공제조합.

주 : 내수는 생산에서 수출을 제외하고 수입액을 합한 수치임.

< 기계 산업의 분류 >

- 한국기계산업진흥회의 기계 산업 분류는 일반기계, 전기기계, 정밀기계, 수송기계, 금속 제품 등으로 구분되며, 자동차 산업은 포함되나 조선업은 제외됨
- 자동차 산업은 전체 기계 산업 생산의 약 20%, 수출의 약 40% 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 (2004년)

○ (중장기 트렌드) BRICs 국가 등 신규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세계 기계 산업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나, 후발 시장 진입 국가들과 선진국간 경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

- 세계 시장 규모 확대 : BRICs, 산유국의 기계 수요 급증과, 고유가, 환경 문제 대두에 의한 신기술 시장 확대 등의 요인으로 세계 기계 시장 규모는 크게 확대되어 나갈 전망이다

· 지역별로 보면 선진 경제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BRICs 등 개도국의 빠른 성장 지속, 산유국 경제의 구매력 확대로 이들 지역의 자본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예상임

· 또한 고유가 및 환경 문제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고효율, 친환경적 제품에 대한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기계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전망이다

- 경쟁 격화 : 세계 기계 산업의 시장 규모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美, 日, 獨의 3대 기계 산업 강국이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나, 저가 제품군에서 중국, 한국과 같은 성장 단계에 있는 국가들간의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기술 융합화 급속 진전 : 기계 산업과 전자 산업이 결합된 메카트로닉스의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NT, BT 등의 신기술이 접목된 나노 메카트로닉스, 바이오 메카트로닉스 등의 분야가 급속히 발전할 전망이다

< 메카트로닉스 >

- 메카트로닉스 (Mechatronics, Mechanics + Electronics) : 기계 산업과 IT기술의 융합 산업

- 나노 메카트로닉스 (NT + Mechatronics) : 나노 기술의 상용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하며, 나노 측정 기기, 나노 공정 제어기 등이 해당됨

- 바이오 메카트로닉스 (BT + Mechatronics) : 생명 공학 기술 구현에 필요한 측정, 공정 기나 초정밀 의료 기계와 같은 전자 기계 장비 등

□ 물류 산업

2005년 전반적인 호조세를 나타냈던 물류 산업은 2006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되며 특히 위탁 물류업의 빠른 성장세가 기대됨

○ (2005년 현황)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물류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세를 보인 가운데 위탁 물류업의 성장이 두드러짐

- 물류기업 실적 호전 : 수출 경기 호황, 기업들의 물류비 절감 노력에 따른 위탁 물류 비중 확대 등으로 물류 기업 실적이 증가
 - 육상/수상/항공 운송업의 2005년 상반기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각각 4.9%, 23.3% 증가함
- 위탁 물류 비중 증가 : 기업들의 물류 비용 절감 노력, 홈쇼핑·인터넷 구매 증가 등으로 위탁 물류 비중이 2002년 25.7%에서 2005년 35.6%로 크게 증가

○ (2006년 전망) : 국내 물류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89.4조 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위탁 물류 시장 규모는 35.7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할 전망

- 위탁 물류 시장 확대 : 정부의 종합물류업 육성 정책의 효과로 물류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대형화가 진전되어 위탁 물류 시장이 급속히 확대될 전망

< 물류 산업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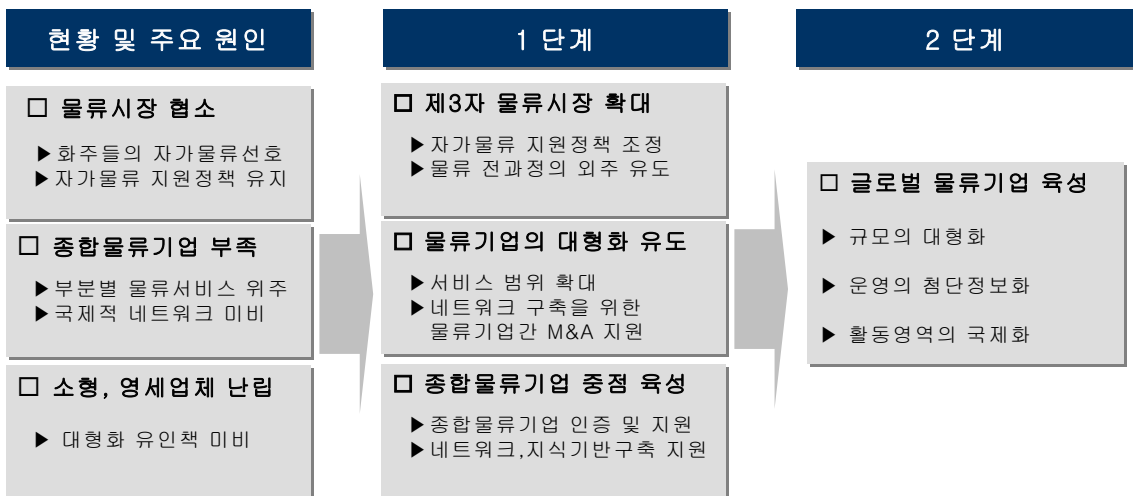
(단위 : 조 원)

	2004	2005(E)	2006(E)
전체 물류 시장 규모	86.5 (1.6%)	87.9 (1.6%)	89.4 (1.7%)
위탁 물류 시장 규모	30.3	31.6	35.7

주 : 위 수치는 2002년 교통개발연구원 자료를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이 자체 추정함.

- (중장기 트렌드) 비용 상승 압력 증대, 국내 경제 저성장 지속과 같은 부정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내 물류 기업의 대형화 및 고부가가치화가 진행되고 국제적인 물류 업체와의 업무 제휴가 확대될 전망
 - 비용 상승 압력 증대 : 고유가, 주5일근무제, 환경 경제 대두 등이 제조 원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여, 국내 물류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가 예상됨
 - 고유가 지속에 의한 차량 연료비 상승 :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차량 연료비 등의 제조 원가 상승 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상승 : 인력 운영 비용 부담이 높기 때문에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추가 인건비 지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환경 부담 비용 증대 : 교토 의정서 발효로 온실 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 되면 도로 및 항공 운송 업계의 비용 상승 압력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경제의 저성장 체제 돌입 : 경기 여건에 따라 수요가 민감하게 변동하는 물류업의 특성상 경제의 저성장 기조는 국내 물류 산업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해외 선진 물류 업체들의 전략적 제휴 확대 : 국제적으로 물류 업계는 물류 효율화 및 다양한 물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업체간 적극적인 업무 제휴가 더욱 활발히 추진될 전망임
 - 물류업의 대형화 및 고부가가치화 : 정부의 종합물류업 육성 정책 등으로 국내 물류 산업은 대형화 및 고부가가치화 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물류 전문 기업 육성 방안 >



자료 : 동북아 시대 위원회.

□ 자동차 산업

2006년 자동차 산업은 내수 부진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더불어 그동안 호조를 보였던 수출 경기도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 및 서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하강할 우려가 높음

- (2005년 현황) 수요 부진과 공급 차질로 내수는 부진한 반면, 수출은 미국 및 서유럽의 수요 증대로 호조세를 지속
 - 내수 부진 : 상반기 '신차효과', 하반기 '내수경기 여건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고유가에 따르는 연료비 증가, 연휴·노사분규에 따른 신차의 공급 차질 등으로 2005년 내수 판매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에 그칠 것임
 - 수입차 판매 호조 : 해외 메이커들의 신차 출시, 할부 조건 다양화 등 공격적 마케팅으로 수입차 판매가 크게 확대됨
 - 수출 호조 지속 : 달러화 약세 정책에 따른 가격 조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품질 경쟁력 제고 등으로 호조세를 지속중임
- (2006년 전망) 미국, 서유럽의 자동차 수요 정체 등에 따르는 수출 증가세 둔화 및 고유가에 의한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소폭 성장에 그칠 전망
 - 내수 정체 : 경제 전체의 내수 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유가에 따르는 자동차 유지비 증가로, 2006년 내수 판매 증가율은 2% 수준에 그칠 전망
 - 수입 판매 호조 지속 : 국내 대기업의 해외 자동차 수입 대행업 진출 등으로 수입차 구입 여건이 개선되면서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할 것임
 - 수출 경기 하강 : 중국, 동유럽 등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대 수출 대상국인 미국과 서유럽의 자동차 수요 정체로 수출 증가세 둔화가 예상됨

< 자동차 산업 전망 >

(단위 : 천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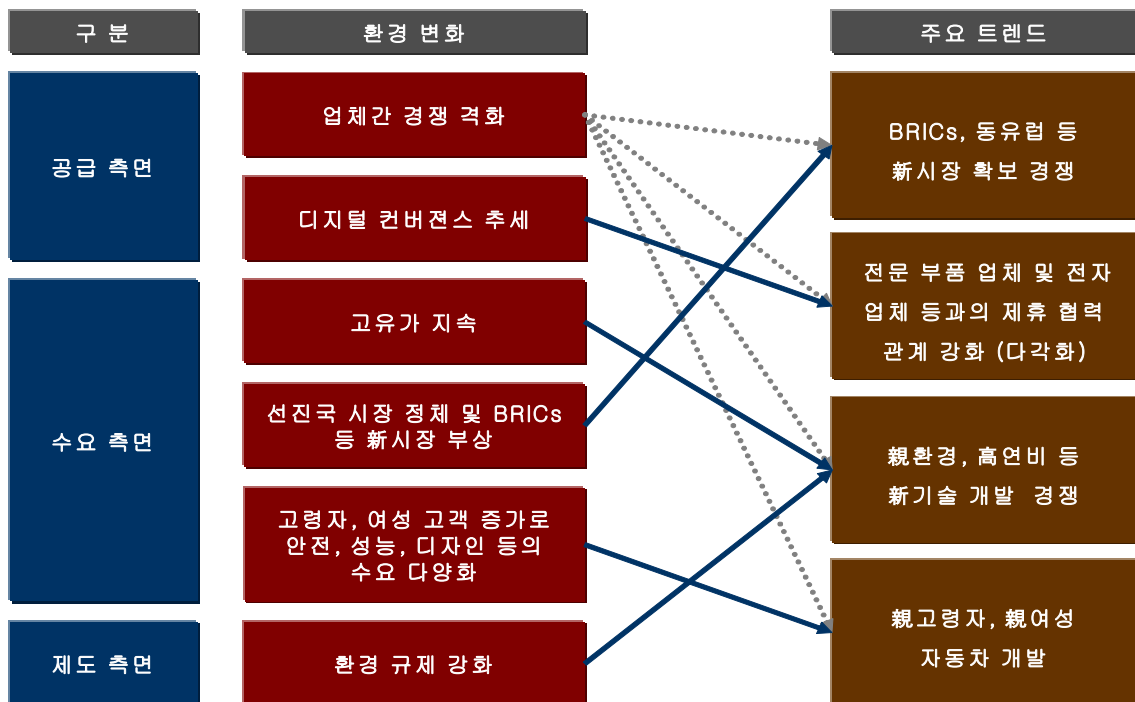
		2004	2005(E)	2006(E)
내수		1,094 (-17.0)	1,113 (1.7)	1,135 (2.0)
수출	완성차	2,380 (31.1)	2,594 (9.0)	2,780 (7.2)
	KD (Knock Down)	610 (69.7)	737 (20.8)	850 (15.3)
생산		3,469 (9.2)	3,718 (7.2)	3,930 (5.7)
수입차 판매		35 (13.8)	39 (12.1)	45 (15.7)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주 : 내수는 국산차 판매 기준, 수출 및 수입은 통관기준, 생산은 KD(현지생산수출) 제외.

- (중장기 트렌드) 유가 상승, 환경 규제 강화, 고령화 등과 같은 환경 변화로 新시장 확보 경쟁 심화, 업체간 기술 개발 협력 가속화, 親환경·高효율 시장 확대, 親고령자·親여성화 등이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을 전망
- 新시장 확보 경쟁 본격화 : 선진국 시장의 정체로 BRICs 등과 같은 개도국 시장의 선점이 향후 수익 창출의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어 새로운 시장에 대한 업체들의 진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임
- 업체간 기술 개발 협력 가속화 : 신기술 개발 비용 부담 회피, 개발 기간 단축 등을 위해 주요 자동차 업체간 제휴·협력 관계가 활성화될 것임
- 친환경·고효율 자동차 시장 확대 : 환경 규제 강화, 유가 상승세 지속 등으로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임
- 親고령자·親여성 자동차 개발 및 마케팅 확대 : 고령 인구 비중 증가 및 여성의 자동차 구매에 대한 영향력 증가 등으로 안전, 성능, 디자인 등의 측면이 강화된 자동차 생산 증가 예상됨

< 자동차 산업의 중장기 여건 변화와 주요 트렌드 >



□ 조선 산업

2006년 조선 산업은 대량 수주 물량 확보에 따르는 수출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해운 경기 둔화로 수주량은 감소할 전망이다

- (2005년 현황) 해운 경기의 둔화로 수주량은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미 3년 이상의 건조 물량이 확보된 상태임
 - 2005년 상반기 이후 해운 경기의 조정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수주량 또한 전년에 비해 약 20% 정도 감소한 1,300만 CGT 수준이 예상됨
 - 반면 2004년에 높은 가격으로 수주한 선박들이 본격적으로 수출물량에 반영되면서 수출액은 전년대비 약 16% 증가한 198억 달러 수준이 예상됨
 - 건조량은 이미 3년 이상의 건조물량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900~1,000만 CGT 수준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2006년 전망) 2005년에 이어 수주량의 감소가 예상되나 수출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유류운반선 및 가스선의 신규 수요가 수주량을 뒷받침 하면서 수주량은 1,000만 CGT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2005년과 마찬가지로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선가가 수출 물량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수출액은 전년대비 약 16% 증가한 198억 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건조량은 꾸준한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1,000만 CGT를 무난히 달성할 것임

< 조선 산업 전망 >

	2004	2005(E)	2006(E)
수 주(만 CGT ²⁾)	1,631 (-16.4)	1,309 (-19.7)	1,012(-22.7)
수 출(억 달러)	153.2 (38.0)	170.2 (11.1)	197.6 (16.1)
건 조(만 CGT)	888 (22.1)	945 (6.4)	1,005 (6.3)

자료 : 한국조선공업협회, 한국무역협회.

주 :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며, 수출은 선박과 수상구조물(HS 89코드) 기준임.

2) CGT(Compensated Gross Tonnage) : 선박의 부가가치, 투입 공수(工數), 강제 소용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톤수임

- (중장기 트렌드) 중국과의 수주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고유가 지속적으로 유조선 및 LNG선 건조가 활기를 띠며, 차세대 선박 건조 시장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 중국과의 경쟁 격화 : 중국은 세계 조선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와 화물선 시장으로 놓고 경쟁이 본격화 될 것임
 - 중국 조선사들의 수주 점유율은 2005년 상반기에 17.2%로 전년동기의 12.9%에 비해 4.3%p나 증가했으며, 건조량 점유율 또한 같은 기간 8.8%에서 12.2%로 증가
 - 특히 2015년 세계 1위를 목표로 설비투자 확대를 지속하고 있어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시장의 한-중-일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임
 - 유조선 및 LNG선 건조 활기 : 단일선체 유조선의 단계적 퇴출, 인도, 브라질, 이란 등의 유조선 및 LNG선 신규 수요 증가 등으로 향후 이 분야의 선박 건조가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됨
 - 단일선체 유조선의 퇴출로 2010년 이후 초대형 유조선(VLCC : Very Large Crude Oil Carrier)이 약 85척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³⁾
 - 브라질 국영석유회사 Petrobras와 이란의 석유회사 NIOTC가 유류·가스운반선을 각각 26척, 47척 조달할 계획이고, 인도의 경우 급증하는 LNG 수요로 오는 2025년까지 34척의 LNG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⁴⁾
 - 차세대 선박 시장 확대 : 고속화물선, 위그선, MVS 등 고속화, 고급화의 특성을 갖는 고부가가치 차세대 선박 시장 공략 여부가 조선 업계의 명암을 가를 것임

< 차세대 선박 >

- 고속화물선(TSL : Techno Super Liner) : 속도 93km/h, 화물적재능력 1,000톤, 운항 범위 930km, 운항 가능 파도 높이 최대 4~6m의 초고속 화물선으로 일본이 1989년 개발에 들어가 현재 시험운행을 마친 상태임
- 위그선(Wing In Ground Effect Ship) : 평균속도 250km/h, 최대속도 500km/h에 달하는 초고속 해상운송수단으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미국 등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Most Valuable Ship(MVS) : 일본은 오염물질 배출량과 연료소비량의 대폭적인 감소 등 선박의 질을 본질적으로 향상시킨 Most Valuable Ship의 건조 기술력을 2010년까지 확보할 계획임

3) Lloyd's Shipping Economist 인용.

4) 일본경제신문, Lloyd's List, TankerWorld, 한국조선공업협회 재인용.

□ 해운 산업

2006년에는 선박공급 증가율이 물동량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해운 경기 둔화가 예상됨

- (2005년 현황)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등에 따른 선박 수요 감소와 신규 선박 공급 확대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해상 운송 운임지수가 하락
 - 수급 불균형 완화 : 세계 경제의 둔화와 중국의 긴축정책으로 물동량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2005년 신조선 인도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고 있음
 - 운임지수 하락 : 2005년 1/4분기 이후 벌크선, 유류운반선의 운임 조정이 시작되었으며, 컨테이너선 운임지수도 5월을 정점으로 32개월 만에 하락

- (2006년 전망) 공급 확대(선박) 등에 따르는 수익성 하락 국면이 지속될 것이나 인도, 브라질 등 신규 시장의 부상으로 전반적인 해운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은 희박
 - 공급 확대 지속 : 2005년과 마찬가지로 신조선의 대량 인도 등에 따르는 운임지수 하락으로 하강 국면이 예상
 - 신규 시장 부상 : 인도, 브라질, 러시아 및 중동 지역 국가들이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해운 경기의 급격한 하락 가능성은 희박

< 해운 산업 전망 >

		2004	2005(E)	2006(E)
정기선 (컨테이너)	운임지수 (HR)	1,537.0 (63.4)	1,946 (26.6)	1,750 (-10.3)
건화물선	운임지수 (BDI)	4,598 (-3.5)	3,315 (-27.9)	2,700 (-18.5)
유조선	운임지수 (WS)	149.6 (49.6)	88.8 (-40.6)	85.0 (-4.3)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Clarkson Research Studies.

주 : 기간별 평균값으로,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 (중장기 트렌드) BRICs와 같은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고유가, 환경 규제 강화, 선사간 경쟁 고조 등의 부정적 여건이 산재해 있음
 - 새로운 시장 부상 : 거대 신흥 국가(브라질, 러시아, 인도), EU에 가입한 동유럽, 그리고 고유가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중동 국가들이 향후 해운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임
 - 고유가로 인한 비용 증가 : 고유가로 인해 선박 연료유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부담 압력이 클 것임
 - 환경 규제 강화 :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선박의 배기가스, 밸러스트 수(Ballast Water)⁵⁾ 배출 규제 등 환경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임
 - 선사간 경쟁 고조 :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경쟁적 확보와 자가 부두 확보를 둘러싼 경쟁, 그리고 M&A를 통한 선사의 초대형화 등 선사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 IT 기술 확산 : EDI, VMS, RFID 등 IT 신기술이 해운 산업에 급속히 확산될 것임

< 해운 산업 관련 IT 신기술 >

-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전자 문서 교환 시스템으로, 화물 수송 의뢰, 서류 발급, 사후 정산까지 일괄 처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거래 비용을 줄이는 한편 고객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함
- VMS(Vessel Monitoring Service) : 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한 자동 인식 장치를 이용하여 화물의 내용(품목, 중량, 출발지, 목적지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

5) 선박은 화물을 하역하고 난 이후나 악천후 시 배의 안정성을 위해 연료유를 담았던 빈 탱크에 해수(海水)를 채우게 되는데, 이 물을 바다로 버릴 때 유류가 방출되어 해수 오염의 원인이 됨.

□ 건설 산업

2005년 호조세를 보인 건설 경기는 2006년에 8.31 부동산 대책, 원자재가 상승 우려, 금리 인상 가시화 등의 영향으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현황) 상반기 건설 경기 호조, 하반기 판교 분양 및 BTL 사업 발주 등의 영향으로 건설 수주가 전년대비 4.2% 증가한 98.6조 원이 전망됨
 - 주체별 : 민간 부문이 상반기에 주택 경기 호조, 하반기에 판교 분양, BTL사업의 민간 전환 등으로 4.8% 증가하여 건설 경기 상승세를 주도
 - 공종별 : 토목 부문은 SOC 민간투자 사업의 수주 증가로 11.7% 증가 예상, 건축 부문은 상반기 주택 경기 호조 등으로 3.7%의 증가가 예상됨
- (2006년 전망) 8.31 부동산 대책 및 위안화 절상에 따른 원자재가 상승 우려, 금리인상 가시화 등의 영향으로 3.7% 감소한 95조 원을 기록할 전망
 - 주체별 : 공공 부문은 행정타운 조성 등으로 완만한 수주 증가세가 지속되는 반면, 민간 부문은 2005년 8.31 부동산 대책 및 위안화 추가 절상에 따른 원자재가 상승 우려, 금리 인상 가시화 등으로 감소세로 반전될 전망
 - 공종별 : 건축 부문은 8.31 부동산 대책과 금리 인상 등으로 수요 위축이 예상되나, 토목 부문은 정부와 지자체의 도시형 개발 사업과 경제특구 계획 이행, 민간의 기업 도시 건설 사업 등으로 수주 증가세 지속될 전망

< 건설 산업 전망 >

(단위 : 조 원, %)

		2004	2005(E)	2006(E)
주체별	공 공	33.8 (4.8)	34.9 (3.3)	36.0 (3.2)
	민 간	60.8(-13.4)	63.7 (4.8)	59.0 (-7.4)
공종별	토 목	32.2 (0.9)	34.0 (5.6)	37.8 (11.2)
	건 축	62.3(-11.6)	64.6 (3.7)	57.2(-11.5)
	· 주거 · 비주거	35.7(-21.0) 26.7 (5.2)	39.1 (9.5) 25.5 (-4.5)	33.7(-13.8) 23.5 (-7.8)
전 체		94.6 (-7.7)	98.6 (4.2)	95.0 (-3.7)

자료 : 대한건설협회.

주 : 위수치는 수주 기준이며,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 (중장기 트렌드) 잠재성장을 하락 등에 따르는 민간 주택 수요 감소와 같은 환경 변화가 예상되나, 전원주택이나 레저 시설에 대한 민간 수요와 국가균형발전 계획 추진에 의한 공공 수요는 증가할 전망

- 정부 건설 수요 지속 : 국가균형발전 계획의 영향으로 계속 증가할 예상임
 -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뉴타운 개발, 기업도시 계획 등으로 2010년까지 토목 및 공공 부문의 건설 수주가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
 - 단, 고령화 진전에 따른 복지 비용의 증가, 미군 이전에 따른 국방비 증가 등으로 SOC 자금 조달 계획 등에 차질이 발생하여 공공 투자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음

< 공공 건설 수요 >

- SOC 투자 확대 : 2006년 BTL(Build Transfer Lease) 등 민자 유치를 통한 SOC 투자 확대가 예상됨
 - 정부는 2005~2007년 까지 24조 원의 민간 자본 유치 계획(BTL)을 수립하였으며, 2007년까지 교육·복지시설에 13조 7,000억 원 규모의 BTL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 : 2006년에는 정부의 신도시 개발 및 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 등은 건설 투자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2006년 이후 정부가 추진할 예정인 송파 지역에 중대형 아파트 2만 가구를 포함하는 총 5만 가구의 주택 공급 확대 및 김포 신도시 등의 개발을 추진이 건설 투자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민간 건설 수요 부진 : 반면 가계의 소득 감소와 기업의 생산 첨단화 등으로 민간 수요는 감소할 전망
 - 잠재성장을 저하, 인구 증가율 둔화, 부동산 규제 강화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가계 부문의 주택 건설 수요가 위축될 전망
 - 기업 부문도 제조업 둔화와 생산 구조의 첨단화 등으로 인해 공업용 건축 수요의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전원주택이나 레저 시설 수요 증가 : 주5일 근무제와 웰빙(well-being) 문화 확산 등으로 민간 부문의 전원주택, 레저 시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전망
 - 고속철도 개통으로 수도권과 지방 역세권 지역의 전원형 주택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주 5일 근무제에 따르는 여가 증가, 웰빙(well-being) 문화의 확산 등으로 지방 자치단체의 관광 시설 및 레저 시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3. 시사점 및 정책 과제

- (시사점) 2006년 대부분의 국내 산업이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애로 요인으로는 내수 회복 강도 미흡, 수출 경기 불투명, 비용 상승 등으로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는 점을 들 수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도 내수 시장은 점점 포화 상태에 이르고, 해외 시장의 경우에도 신흥 공업국 기업들의 진입에 따르는 글로벌 경쟁 심화, 고유가 시대 진입에 의한 비용 상승으로 더 이상 단가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고 있음
- (정부의 정책 과제) 단기적으로 2006년 예상되는 고금리 및 환율 하락세가 급격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경제 정책이 요구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신규 수출 시장 진출 전략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임
 - 물가 및 금융 시장 안정 : 2006년 예상되는 3高(高유가, 高금리, 원高) 로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물가 안정에 주력하되 급격한 정책 금리 인상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외환 시장에 대한 미세 조정 (fine tuning) 을 통해 변동성을 축소시켜야 할 것임
 - 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핵심 기술 확보가 관건인 만큼 정부는 신기술 개발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함
 - 고부가가치 신기술 산업으로의 신속한 구조 전환 촉진 : 저가 범용 제품 생산에 집중되어 있는 국내 산업 구조의 취약성 개선을 위해, 투자 규제 및 출자 규제 완화 등의 고부가가치 신기술 신산업으로의 신속한 구조조정 촉진 정책이 필요함
 - 신규 시장 개척 지원 : 선진국과 중국에 편중된 수출 대상 지역을 중국 이외의 BRICs 등 새로운 시장으로 다변화할 수 있도록, 기업-정부간 정보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할 것임
 - FTA 확대 : 세계적인 지역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EU나 ASEAN 등의 주요 경제권과 FTA 확대가 절실함

주 원 연구위원 (3669-4030, juwon@hri.co.kr)